

조국 “민주 통합추진위 구성 동의”… 지방선거 연대 ‘주목’

혁신당, 통합 논의 지방선거 이후로… 이번주 당무위 열어 추인
조 대표 “통합 의미, 선거 연대인지 추상적 구호인지 확인 필요”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통합추진준비위) 구성 제안을 받아들였다.

조국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 구성에 동의한다”며 “이번 주 안으로 당무위원회를 열어 오늘의 결정을 주인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날 야간 최고위 뒤에 당내 반대에 따라 지방 선거 전 합당 논의는 중단하고 통합 논의는 선거 이후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당내에 통합추진준비위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혁신당에도 같은 제안을 했다.

조 대표는 “양당 간 회동이 이뤄지면 먼저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지방 선거에서의 연대인지, 아니면 추상적 구호로서의 연대인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지방선거 연대가 맞는다면 추진준비위에 그 원칙과 방법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 후에는 통합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내용과 방식에 대한 논의를 책임감 있게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양당은 상호 신뢰와 존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특정 정치인 개인과 계파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반드시 역효과가 난다. 국민과 양당 당원께 또다시 실망을 드리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민주당이 단순히 연대라고만 표현했는데 우당 간 레토릭적 연대를 의미하는지, 실질적으로 두 당이 지선을 치러낸다는 선거 연대인지 분명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민주당의 답변을 요구했다.

아울러 “합당이 아닌 ‘지선 이후 통합’이라는 단

어를 썼는데 민주당의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에 따라 당의 대응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박 선임대변인은 또 “양당 간 후보 정리라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는 선거 연대가 돼야 한다”며 교섭단체 조건 완화 등 혁신당이 제기해 온 정치개혁 의제에 대한 민주당의 답변을 촉구했다.

혁신당은 자선 전 합당 제안이 무산된 데 대한 정 대표의 사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조 대표는 “정 대표께서 혁신당 당원에게 표명한 사과를 받아들인다”며 서 “혁신당 당원은 당으로 향해지는 비방과 모욕에 큰 상처를 입었다. 당시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가 오고 땅이 굳듯이 향후 양당 간 연대와 단결이 강화되길 희망한다”며 “혁신당은 어떤 풍파 속에서도 대의 중심 큰 정치의 길을 끗끗이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박 선임대변인은 “정 대표의 사과가 실질적 의미를 갖기 위해 합당 논의의 국면에서 유포된 혁신당에 대한 음해성 글과 이미지를 삭제하는 작업을 민주당이 책임 있게 진행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박 선임대변인은 “양날의 칼”이라며 “불리, 유리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그는 “혁신당의 독자적인 후보가 아니지 않느냐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역으로 당이 약해져 지지하지 못했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향후 민주당과의 합당이 열려 있다면 혁신당 후보라고 해서 지지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오히려 선택 받을 가능성도 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장동혁 “켄텍, 에너지 전략 핵심 자산으로 키워야”

국힘 대표 나주 방문…에너지·미래산업 발전 전략 논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한국에너지공과대학(켄텍)을 대한민국 에너지 전략 핵심 자산으로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11일 나주시 빛가람동 켄텍을 방문해 광주·전남의 에너지·미래산업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

장 대표는 “켄텍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에너지 특화 연구 중심대학이며,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과 탄소·탄소제로 에너지 생산 기반을 모두 갖춘 ‘에너지 풀세트 지역’”이라며 “RE100”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입지 여건이 매우 우수하다”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 기반 위에 미래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며 “에너지 산업과 미래산업은 지역 발전 과제를 넘어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국가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특히 국회에 계류중인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산업 경쟁력과 지역 발전 관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 구축이 동시에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립도시 특별법은 재생에너지 생산 공급 소비

를 한 도시 안에 선순환시키는 신도시형 모델을 제시하고, 산업시설지구(산단)와 배후정주지구(주거),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분산형전력망지구를 한 체계로 지정 관리하도록 명문화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산업통상부는 공모를 통해 자립도시를 확정하게 되는데, 이 법안의 통과는 물론 전남을 사업부지로 밟아주겠다는 뜻으로 일한다.

장 대표는 또 “기업이 요구하는 전력·인재·연구 환경과 켄텍의 산업생태계 역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이번 방문이 호남 에너지 산업과 미래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오 켄텍 총장 직무대행은 “(장 대표의 발언이) 큰 힘이 되는 것 같다. 에너지를 국가 성장과 지역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 데 적극적으로 도와 준다는 데 감사의 표현”이라며 “정부, 여야와 함께 국가를 위한 관점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힘쓰겠다”고 환답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동훈 제명 반대 성명’ 배현진도 징계 절차

국힘 윤리위, 심의 돌입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1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성명서 작성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제소돼 징계 절차가 시작된 친한(친한동훈) 계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을 여의도 당사로 불러 본인의 입장을 청취했다.

배 의원은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한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21명 당협위원장의 성명서를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당했으며, 당 윤리위는 지난 6일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에 착수한 바 있다.

배 위원장은 윤리위 회의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많은 분이 저의 탈당과 제명을 걱정하고 있다. 공천권은 중앙당 지도부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정치적으로 단두대에 세워서 마음에 맞지 않거나 껄끄러운 시당 위원장을 징계할 수는 있으나 민심을 징계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당원권 정지 등의 결정을 내려서 한창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시당의 공천권 심사를 일제히 중단시키지 않을까 염려스럽다”며 “이는 6개 월간 쌓아온 저희 조직을 완전히 해산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배 위원장은 전날 밤 서울시당 윤리위가 전 두환 전 대통령 사진을 당시에 게시하자고 주장한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에게 ‘탈당 권유’ 징계를 결정한 것에 대해 “중앙당이 처리하기 힘든 숙제를 용기 있게 해낸 것”이라며 “(고씨가) 이의 신청을 했다면 공은 중앙윤리위로 넘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 080-234-6588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 알로에